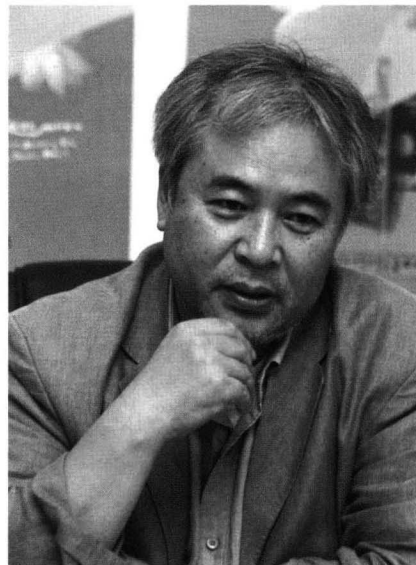


소출 기다리는 농사꾼의 심정으로

주빈국 조직위원회 황지우 총감독

‘한국’에 내미는 첫 손길, “한국 문화의 씨앗 고루 심을 터”
‘성공리에 치러진 후 ‘소득’ 있다면 출판계



2005프랑크푸르트도서전을 한 달여 앞둔 지금, 황지우 총감독의 심기는 각별하다. 그는 “명절도 없이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정신 없게 지내고 있다”고 근황을 털어냈다. 작년 6월, 주빈국조직위원회 총감독 자리를 맡게 된 이후 지금까지 그는 모든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 ‘선택’과 ‘집중’을 두루 염두에 두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도 문제였지만 선택된 것에 어떠한 의미가 생산되도록 할 것인가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집중시킴으로써 생산해 낼 수 있는 또 다른 의미, 그러한 효과를 독일 현지에서 어떻게 스며들게 하는가도 고민 사항이었죠. ‘대화’와 ‘스밈’은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중요한 모토입니다.”

무엇보다 유럽에선 백지와 같은 ‘한국’의 이미지가 행사를 기획하고 지휘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다. 서울올림픽과 월드컵을 계기로 국가적인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한국에 대한 ‘확신’의 부재다. 황 총감독은 “우수한 문화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하면서도 한번도 한국을 접해 볼 기회가 없었던 다수의 독일인들에게 ‘문화국가’ 이미지를 전하는 게 숙제”라고 했다.

“하루키와 모옌의 작품은 유럽의 서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이문열, 고은, 황석영과 같은 작가는 유럽 땅에 내리자마자 무명입니다. ‘유럽에 아시아문학은 포화상태’라고 말하는 독일 비평가들의 얘기는 그래서 서운해요. 주빈국 행사를 앞두고 독일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는 굉장하지만 아직은 부족한 수준입니다.”

황 총감독은 그동안의 문학행사를 통해서도 원로작가뿐 아니라 젊은 작가, 여성작가들을 부각시켰다. 전통과 현대의 결합, 젊은 세대의 예술인들이 이끄는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지나치게 ‘한국적’인 것들을 배제하고 모던코리아의 이미지를 살린 음악, 댄스, 연극 등도 기획했다.

“단연 중심은 우리의 출판문화를 보여주는 주빈국관입니다. 출판과 문학이야말로 장기적으로 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직지 to IT’를 핵심 모토로 전체 예산의 1/5 이상이 투입됐어요. 이를 기본으로 영화와 전시, 공연을 부대행사로 소개함으로써 우리의 문화를 알리려 합니다.”

그는 “자국 국민들의 동참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현지의 반응이 우선”임을 강조하면서 “그런 면에서 ‘한국의 정원’은 의미가 크다”고 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치러지는 도서전보다 오래도록 은은하게 한국의 여운을 길게 드리울 것이라 기대 때문이다.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담론을 만드는 것이고, 둘째는 한국취미와 취향을 배어들게 하는 것이지요. 정원은 그런 것에 적합합니다. 매년 우리 출판인들이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을 찾을 때마다 갖가지 행사를 치르고 외빈을 만나는 데도 좋고, 프랑크푸르트대학에 신설될 한국학과와 연계해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도서전 주빈국은 유럽에 한국을 새기기 위한 ‘점적기’에 불과하다. 황 감독은 “비로소 세계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이번 도서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특히 언론이 넓고 깊은 시야로 이를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힘들게, 힘들게 자리를 지켜왔다”는 말로 그간의 우여곡절에 대한 속내를 드러낸 그는 “총감독으로서 한때는 상처도 많이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제 그동안 지은 농사의 소출만을 기다리는 심경”이라고 털어냈다.

“행사가 성공리에 끝난 후 ‘소득’이 있다면 출판계 몫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정말 힘들게 이 자리를 지켜왔지만, 이번 행사로 한국과, 한국의 문화가 조금이나마 알려진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주빈국**

취재 홍이현기자 | 사진 박신우기자